韓國環境復元綠化技術學會誌 2(4) : 35~46(1999)
J. Korean Env. Res. & Reveg. Tech. 2(4) : 35~46(1999)

주민 및 이용자의 의식에 기초한 안면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연구

이동근[1] · 방광자[1] · 김이신[2] · 윤소원[2] · 강현경[2] · 김정연[3]

[1]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 [2]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3]충남발전연구원

The Foundation Research Development of Anmyundo Based on a Consciousness of Resident and Visitor

Lee, Dong-Kun[1], Bang, Kwang-Ja[1], Kim, E-Shin[2], Youn, So-Won[2], Kang, Hyun-Kyung[2] and Kim, Jung-Yun[3]

[1]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2]Graduate School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3]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For the purpose of building up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Anmyundo*, this paper is intended to collect the basic sources of *Anmyundo* and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its development direction, which was surveyed on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The result shows that local residents are not fully satisfied with its environment(59.6 point), but natural environment(74.2 point) turns ou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satisfaction and living environment(66.0 point), social · economic environment(48.1 point) follow the next. Satisfied with its natural environment which includes good scenery and a lot of environment resources, residents and visitors are discontented with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 economic environment.

In terms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responses of residents are clearly divided into both sides in the same level by each 27.7%. On the other hand, visitors support 「conservation」(36.8%) rather than 「development」(22.8%) and prefer to keep its present natural environment as a environment study place and rest area.

Key word : Anmyundo, consciousness of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development, conservation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지의 개발도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환경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박종구, 1994). 특히 최근에는 농 · 어촌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농원과 농 · 어촌휴양지 등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반성과 여가행태 및 관광객의 욕구 등이 점차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러한 개발이나 보전 등의 지역 계획에 있어서 적절한 여가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잠재자원 및 여가공간 개발에 대한 필요성, 지역의 크고 작은 잠재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의 개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등의 지역 개발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권욱진, 1995). 이러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계획과정에 마련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평가가 필요한데, 이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은 자연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로 가능하나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아름다움 등 개인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환경의 질에는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기준(주민의식)이 필요하다(이동근, 1992). 특히 최근의 환경정책이 개별적인 시책에서 종합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주민의 의사반영을 중시하고 있음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환경평가도 객관적 환경평가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동근, 1998).

이러한 주민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적용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연안습지의 지역특성에 따라 다른 보전 · 관리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나라의 연안습지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자의 의식에 기초하여 연안습지의 현황을 평가하고 습지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에 관한 기본틀을 수립한 바 있고(이동근 외, 1998) 농촌의 쾌적환경 지표를 주민의식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고 농촌 환경보전요구를 제시한바 있다(이창식, 1997). 또한(이동근, 1997)의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동 · 식물과 자연에 가까운 산림에 대해 주민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관적인 환경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검토하고, 주관적 평가 특유의 평가자의 속성 · 성향과 평가 결과와의 관련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주민에 의한 지역환경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이동근, 1998).

또한 농 · 어촌계획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농 · 어촌 마을이 갖는 경관적 특성을 국민의 여가활동과 연관시킴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단위 개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한 바 있고(권욱진, 1995) 생태적 순환과 국토보전적 가치를 지닌 국립공원을 중점으로 하여 현행 토지이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구성체계를 도출, 지형별 특성에 따른 유형별 시설구성요소, 공간배치, 조성기준 등에 대한 계획모형을 개발한(박종구, 1994)의 연구가 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성의 대표적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인이 된 자연자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1996). 그러나 농 · 어촌 지역에 주민과 이용자의 의식을 조사 · 분석하여 이를 지역의 발전 방향으로 접목시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자연을 이용한 여가활동 및 레져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청정 자연지역인 안면도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국제 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개발 압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면도를 대상으로 주민과 이용자들의 의식을 반영하여 안면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안면도의 현황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식조사로 이루어졌다.

안면도의 현황평가에서는 주민들이 현재 살고있는 안면도에 대하여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 평가와 그에 따른 평가항목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용자에게는 이용자의 지역이용 빈도조사와 안면도의 방문목적 등을 조사하였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앞으로의 안면도 개발에 있어서 안면도의 계획방향(개발과 보전 측면)을 알아보고자 안면도 전체의 발전방향과 각 지역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굳이 지역구분(자연환경보전지역 · 태안해안 국립공원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을 하여 주민과 이용자 양 측면에서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본 이유는 앞으로의 안면도 발전

방향에서 지역별, 주민·이용자별로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시 설정한 가정에 그 결과가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며 향후 안면도의 발전계획 수립시 무분별한 개발계획 보다는 지역별로 주민과 이용자가 원하는 발전방향을 수렴하고자 본 연구에서 지역구분별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주민과 이용자들이 원하는 안면도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 그 지역에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그림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안면도는 연육도로서 수륙 양면에 걸쳐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의 각광받는 관광명소이자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 동안 안면도는 불리한 접근성과 편익시설의 미비로 관광객 유인력이 낮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안면도의 지역경제 성장은 부진하였지만 천혜의 자원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보전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로는 현재 이와 같은 안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주민 및 이용자에 기초한 만족도 평가 및 향후 안면도의 발전방향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환경조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본 조사는 1999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지역주민들과 안면도를 방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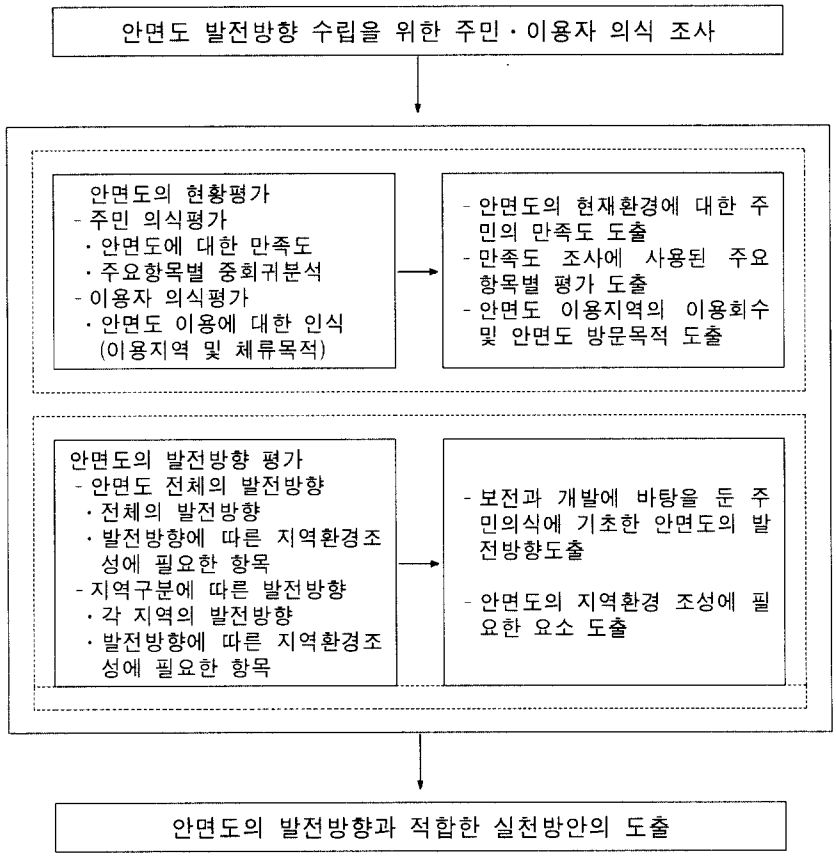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내용 및 흐름

2. 연구의 방법

설문 표본 추출방법으로는 각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거지를 목적표본추출법에 의하여 표본 추출하였다. 또한 조사의 편중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과 여, 우리 나라 평균연령의 전후를 기본으로 구분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식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창기리를 비롯한 11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대 1면접을 통한 방문면접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 204부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57부를 실시하였다.

안면도의 전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이동근, 1993 ; 성현찬, 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항목 설정체계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면도 전체환경 평가를 위한 항목을 구분하였는데, 중간평가항목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 · 경제환경으로 구분하였고 자연환경의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동 · 식물, 산림, 지형 및 토양, 하천 및 호수, 곤충 및 조류로 설정하였고, 생활환경의 하위항목으로는 공기, 거리 및 도로, 쓰레기, 경관, 공원으로 설정하였다. 사회 · 경제환경의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인구,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및 박물관, 안내판으로 설정하였다(표 1).

안면도 전체 환경에 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만족」을 100점, 「조금만족」을 75점, 「어느 쪽도 아님」을 50점, 「조금불만」을 25점, 「불만」을 0점으로 주었고, 안면도의 발전방향 평가를 위해 「완전보전」을 100점, 「보전」을 75점, 「중간」을 50점, 「개발」을 25점, 「완전개발」을 0점으로 하는 등간척도의 평점으로 변환하여 각 평가항목별 평점을 평균화하였다. 또한 안면도에 필요한 항목들의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를 100점, 「중요」를 75점, 「중간」을 50점, 「중요하지 않음」을 25점, 「매우 중요하지 않음」을 0점으로 하여 각 평가항목별 평점을 평균화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A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만족도 평가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환경에 대한 하위평가항목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식조사내용은 크게 안면도의 주변환경을

표 1. 만족도 평가항목 체계

종 합 평 가	중 간 평 가	하 위 평 가
주변전체환경	자연환경	귀중한 동 · 식물 자연에 가까운 산림이나 숲의 조성 지형이나 토양의 보존 주변에 하천 · 호수 · 습지 등이 존재 주변에서 새 · 곤충들을 쉽게 볼 수있음
	생활환경	공기의 깨끗함 하천이나 호수의 깨끗함 거리 · 도로의 깨끗함 주변의 쓰레기 처리 및 악취 주변의 수려한 경관 쉬거나 즐길 공원이 있음
	사회 · 경제환경	현재의 인구수 공공시설(관공서 · 경찰서 등) 교육(교육환경 · 교육시설 등) 교통(교통체계 · 도로환경 · 자동차량 등) 문화재 및 박물관 안내판 · 전신주 등의 관리체계

평가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와 안면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질문으로 나누었고 그 외에 안면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주민과 이용객이 원하는 안면도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지역별로도 그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안면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의식조사를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안면도의 현황평가

1) 주민 의식평가

(1) 안면도에 대한 만족도

안면도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안면도 전체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46.0%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안면도는 자연경관이 좋고 울창한 산림이나 숲이 주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중 주변에 위치한 산림이나 숲의 조성 항목에는 60.0%가 만족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결과로는 「조금 만족」이 38.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공기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86.1%로 가장 높은 반면 주변 도로와 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불만」이 26.6%로 가장 높은 결과로 미루어 안면도의 도로와 거리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는 달리 「조금불만」이 29.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교육환경시설과 교통체계에 대하여 주민의 약 45% 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재나 박물관과 같은 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55% 이상이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값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순으로 각각 74.2점, 66.0점, 48.1점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자연환경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체환경에 대한 평균값의 결과로는 59.6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이들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안면도의 지형특성상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아름답고 또한 주민들이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는 상당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여러 법령에 의한 중첩적인 규제로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개발행위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면도의 사회·경제환경은 주민들이 만족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 대부분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앞으로 계획수립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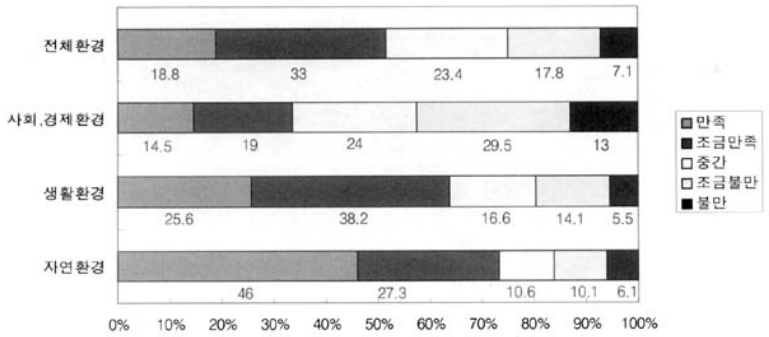

그림 2. 안면도의 사회·경제, 생활, 자연환경과 전체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2) 환경항목별 중회귀분석 결과

각 하위평가 항목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선택법은 증감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은 종속변수(전체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환경)에 따라 수립됐다. 모형들의 설명력은 대체적으로 보통이며 독립변수의 기여도는 각 독립변수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2).

모든 분석은 1%~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구분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환경에 대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환경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순으로 유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환경과 생활환경이 전체환경을 설명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하위평가항목의 영향은 1% 유의수준하에서 새와 곤충의 존재, 그리고 지형 토양의 보존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채택되었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하위평가항목에 대한 영향 또한 1% 유의수준하에서 쉴 수 있는 공원, 깨끗한 공기, 쓰레기 처리 등의 변수가 채택되었고, 사회 · 경제환경의 경우 안내판 등의 관리체계나 교육환경, 교통체계, 인구수, 문화재 및 박물관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각 1%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안면도는 자연환경이 다른 요인보다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더 중요하며, 특히 동물의 존재와 토양의 보존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면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잘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2) 이용자 의식평가

(1) 안면도 이용에 대한 인식

가. 이용지역

안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면도 지역의 이용 비율을 조사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조사하였다(그림 3).

표 2. 항목별 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전체환경	사회 · 경제환경**	0.4065	0.058
	생활환경**	0.2183	0.067
	자연환경*	0.1290	0.061
	F : 32.53 R : 0.5854		
자연환경	새, 곤충의 존재**	0.3250	0.055
	지형 토양의 보존**	0.1908	0.073
	산림, 숲의 조성**	0.1876	0.059
	F : 19.40 R : 0.5414		
생활환경	공기의 깨끗함**	0.3417	0.105
	쉴 수있는 공원의 존재**	0.2707	0.051
	쓰레기 처리**	0.1600	0.058
	F : 21.33 R : 0.5048		
사회 · 경제환경	안내판 등의 관리체계**	0.3050	0.059
	교육환경**	0.2147	0.058
	교통체계**	0.1483	0.056
	인구수**	0.1440	0.051
	문화재, 박물관*	0.1233	0.057
	F : 30.79 R : 0.6739		

F : F치, R : 중상관계수, ** : 1%에서 유의, * : 5%에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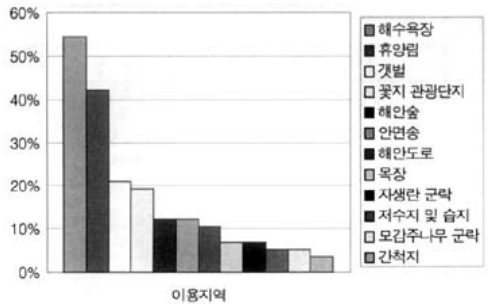

그림 3. 이용자들의 이용지역 비율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는 「해수욕장」이 54.4%로 가장 높게 나왔고, 「휴양림」이 42.1%, 「갯벌」이 21.1%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꽃지 관광단지」와 「해안숲」, 「안면송」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양 및 관광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봄, 가을에도 또한 체육대회나 특별 이벤트의 장소로 사용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체류목적

안면도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체류목적은 그림 4와 같다. 대부분 이용자들의 체류 목적으로는 「자연체험 및 휴식」이 61.4%로 높은 평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안면도에서 유명한 관광코스로 자리잡은 「안면도 휴양림 이용」이 26.3%, 그리고 「생태학습」이 12.3%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주로 해수욕장과 휴양림, 관광단지인 것과 체류목적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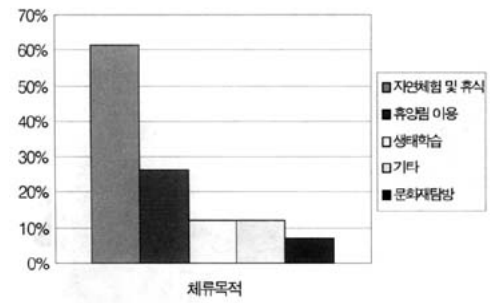

그림 4. 이용자들의 체류목적

자연체험 및 휴식과 휴양일 것으로 볼 때 안면도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주목적은 특별한 문화재 관람이나 교육상의 목적보다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감상과 휴양 및 관광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안면도에 대한 발전방향 평가

1) 안면도 전체에 대한 평가

(1) 안면도의 발전방향

안면도 발전방향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은 뚜렷한 양립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5). 「보전」과 「개발」이 각각 27.7%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완전개발」과 「완전보전」에서는 보전하자는 의견으로 치우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의식조사 결과는 주민 의식조사결과와 추세가 비슷하게 보여진다. 하지만 「보전」이 36.8%로 「개발」 22.8%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안면도의 환경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안면도의 개발(특히 사회·경제환경 측면)을 원하고 있었지만 안면도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푸른 산림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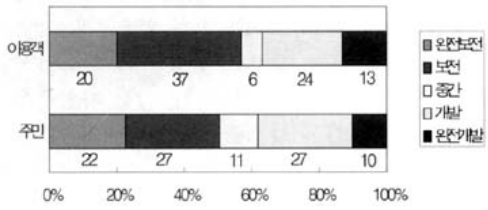

그림 5. 안면도 전체의 발전방향

(2) 발전방향에 따른 지역환경 조성에 필요한 항목 평가

안면도의 발전방향에 따른 지역환경조성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그 중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이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숲 보전」으로 주민(89.7)과 이용자(88.9)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이 역시 주민(87.3)과 이용자(84.9) 모두에게서 두 번째

표 3. 발전방향에 따른 지역환경 조성에 필요한 항목 (( ) : 표준편차)

안면도 지역에 필요한 항목	주민 평균	이용자 평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	87.3(18.3)	84.9(21.5)
동 · 식물종의 다양성 확보	73.6(26.5)	68.6(26.7)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숲 보전	89.7(17.8)	88.9(19.4)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전	79.7(22.4)	83.5(17.8)
주변의 수변 시설의 정비 및 보전	78.6(21.8)	74.4(21.8)
산림과 해안지대에 풍부한 녹지 보급	81.7(23.9)	72.2(22.5)
휴식 및 학습을 위한 생태 공원 조성	79.3(21.8)	74.4(20.0)
환경 교육을 위한 자연 학습로 조성	78.2(22.7)	71.0(22.8)
해안을 따라 녹지축 연결	76.0(24.3)	68.0(24.5)
산림절개를 복원하기 위한 법면 녹화	73.9(24.1)	59.4(23.8)
해안 공원 개발	78.9(25.0)	76.0(24.6)
자연 체험 및 휴양 장소 조성	81.7(20.9)	78.9(21.5)
문화가치 및 교육을 위한 환경 프로그램 개발	74.6(23.4)	68.2(23.7)
테마마을 조성	74.4(26.4)	67.4(26.4)
문화유적 및 민속 풍습 계승 및 부각	71.2(24.9)	66.8(27.1)
관광객 유치 공간 조성	79.3(25.1)	69.0(26.9)

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한 항목으로 선택된 것은 주민과 이용자의 의식을 통합하여 정리해볼 때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전」, 「산림과 해안지대에 풍부한 녹지 보급」, 「자연체험 및 휴양장소 조성」이 세 번째로 선택되었다.

주민과 이용자들은 모두 안면도의 자연환경 자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안면도가 가지고 있는 울창한 산림 · 숲, 생물서식공간, 자연 체험적 공간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역 구분에 따른 발전방향

(1) 각 지역의 발전방향

안면도를 국토이용계획의 지정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취락지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의식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역에서 창기리와 두산목장, 황도리, 안면휴양림, 모감주나무 군락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꽃지해수욕장과 삼봉해수욕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승언리와 야쿠르트 목장, 고남리 일대는 농림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안면읍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즉,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 방향, 즉 보전과 개발에 대한 의견을 조사 비교하기 위하여 안면도의 11개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것이다(그림 6).

각 지역의 발전방향을 안면도 전체 발전방향 평가에서 사용되어진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완전보전을 100점으로 주고 완전개발을 0점으로 주어서 5단계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주민 평균과 이용자 평균을 비교해보면 주민들은 해수욕장 주변과 야쿠르트 목장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주변 경관이 좋고 수변요소(바다, 저수지)와 자연환경자원이 풍부한 황도리와 야쿠르트 목장 주변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전방향에 관한 의식이 주민과 이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T-test는 앞에서 분류된 4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5%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는 지역은 안면휴양림과 두산목장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고, 그 외의 세 지역은 주민과 이용자간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양림과 어촌의 경관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황도리를 포함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 지역을 방문한 이용자 쪽에서 보다 더 보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같은 유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지역과 목장을 포함한 농림지역은 공간의 특성상 주민과 이용자의 의식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발전방향에 따른 지역환경 조성에 필요한 항목 평가

표 5는 각 지역의 주민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항목 중 각 11개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주민과 이용자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숲 보전」으로 나타났다. 주민 의식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말한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숲 보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외에 「산림과 해안지대에 풍부한 녹지 보급」, 「산림절개를 복원하기 위한 법면 녹화」 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용자 의식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역시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숲 보전」이고, 그 외에는 「테마마을 조성」,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전」, 「주변의 수변시설의 정비 및 보전」, 「자연체험 및 휴양장소 조성」 등이다.

표 4. 안면도 각 지역의 발전방향

지역 구분	지 역	주민 평균	이용자 평균	샘플수
자연환경보전지역	창기리	55.6(31.3)	-	주 민 : 139 이용자 : 23
	두산목장	45.0(34.9)	70.0(27.3)	
	황도리	43.4(30.3)	75.0(24.2)	
	안면 휴양림	75.0(21.8)	51.0(35.7)	
	모감주나무 군락	50.0(23.1)	75.0(35.3)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체*	53.8(33.2)	67.7(36.3)	
태안해안 국립공원지역	꽃지해수욕장	38.4(21.9)	52.0(52.7)	주 민 : 28 이용자 : 23
	삼봉해수욕장	38.8(37.7)	50.0(35.3)	
	국립공원지역 전체	38.6(30.2)	51.0(35.2)	
농림지역	승언리	50.0(33.0)	-	주 민 : 32 이용자 : 12
	야쿠르트 목장	33.3(38.1)	70.0(36.7)	
	고남리	43.3(36.6)	43.0(41.7)	
	농림지역 전체	42.2(27.3)	56.5(27.8)	
도시지역	안면읍	50.0(25.0)	-	주 민 : 6 이용자 : -
	도시지역 전체	50.0(25.0)	-	

* : 5%에서 유의, - : 해당사항 없음, ( ) : 표준편차

표 5. 발전방향에 따른 지역환경 조성에 필요한 항목 (- : 해당사항 없음)

지역 구분	지 역	대상자	안면도 지역에 필요한 항목
자연환경보전지역	창기리	주 민 이용자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 숲 보전 테마마을 조성
	두산목장	주 민 이용자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 숲 보전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전
	황도리	주 민 이용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
	안면 휴양림	주 민 이용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 숲 보전
	모감주나무 군락	주 민 이용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
태안해안 국립공원지역	꽃지관광단지	주 민 이용자	산림절개를 복원하기 위한 법면 녹화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 숲 보전
	삼봉해수욕장	주 민 이용자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 숲 보전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농림지역	승언리	주 민 이용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주변의 수변시설의 정비 및 보전
	야쿠르트 목장	주 민 이용자	산림과 해안지대에 풍부한 녹지 보급 테마마을 조성
	고남리	주 민 이용자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 · 숲 보전 자연체험 및 휴양장소 조성
도시지역	안면읍	주 민 이용자	산림과 해안지대에 풍부한 녹지 보급 -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산림의 보전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녹지 보급, 법면 녹화 등이 각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산림의 보전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과 함께 각 지역에 맞는 테마마을 조성이나 자연체험 및 휴양장소 조성,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안면도를 찾는 이용자들에게는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잘 보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학습이나 체험을 통한 만족감을 주기 위한 시설물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안면도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안면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활환경과 사회 · 경제환경은 자연환경 정비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시설 · 교통체계 · 문화시설 등의 정비수준은 안면도 주변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기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환경은 앞서 설명한 주민 의식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는 해수욕장, 휴양림, 갯벌, 꽃지 관광단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장소로부터 중점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안면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전체적인 안면도 발전방향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면도의 보전과 개발에 대하여 뚜렷한 양립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면도에 대하여 개발보다는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안면도의 주민들은 안면도 개발에 별다른 이질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자연환경이 그다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발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면도를 찾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안면도의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환경 학습적인 목적을 가지고 안면도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고서라도 원림에 가까운 안면도의 자연을 보호하여 교육적인 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양면을 모두 만족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전과 개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안면도를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은 그들이 방문한 지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전을 원하고 있음을 평균값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민 및 이용자 대상의 의식조사에서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보전, 개발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면도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그대로의 울창한 산림·숲을 보전해야 한다는 항목이었고 주민과 이용자들 모두 현재의 안면도 자연환경 자원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안면도를 생물의 서식공간, 자연체험적 공간으로서 보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항목 조사에서는 이용자들이 학습이나 체험을 통한 만족감을 얻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시설물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법령에 의한 중첩적인 규제로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개발행위가 제약되어 있는 안면도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잠재력을 볼 때 주민과 이용자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초를 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특성을 잘 이용하여 발전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발전방향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민과 이용자의 의식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안면도의 특성이나 발전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환경 조성방안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지만 현재 공동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안면도 종합개발수립」 계획에서 현재 안면도의 자연환경과 물리적인 환경, 관련법규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앞으로 안면도의 개발계획시에 이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단, 설문조사 기간이 관광시즌이 아닌 관계로 거주자의 설문 표본수에 비하여 이용자의 설문 표본수가 현저히 적게 집계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이용자 설문 결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인용문헌

국립공원관리공단. 1996. 태안해안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998.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습지 및 비교대상지 조사.

권욱진. 1995. 남해 노루목 관광어촌마을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농림수산부. 1995. 농촌마을 생태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제1차년도 결과 보고서.

문정희·이희철. 1997. 주민의식에 기초한 주거환경 평가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4) : 91-107.

박종구. 1994. 생태관광단지의 계획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현찬. 1995. 경기도 쾌적환경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성현찬·이동근. 1999. 도시녹지정책수립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4(1) : 145-154.

윤성수·이정래·조래청. 1996. 농촌계획에 있어 다중회귀 분석법에 의한 사업지 결정 : 경지정리 사업비의 예. 농촌계획학회지 2(2) : 103-108.

이동근. 1997.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6(1) : 67-76.

이동근. 1998. 주민의식에 기초한 지역환경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3(3) : 203-222.

이동근 · 윤소원. 1998. 연안습지의 현황 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지 4(1) : 63-74.

이창식. 1997. 주민의식에 기초한 쾌적환경지표 및 요구. 농촌계획학회지 3(2) : 25-35.

조영국 · 김성진. 1998. 농촌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설정. 농촌계획학회지 4(1) : 15-21.

충남발전 연구원. 1999.「안면도 종합개발수립」중간 보고서.

接受 1999年 12月 17日